



산업분석 | 철강/비철

Analyst
정하늘

02 3779 8987

haneulj@ebestsec.co.kr

Overweight

철강/비철

中 관세 조정, 하반기 긍정적 변화의 신호탄

중국, 7월 1일부터 일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인하 결정

27일 중국 국무원 산하의 관세세척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7월 1일부터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에서 수입하는 화학품, 농산품, 의료용품, 의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해산물 및 돼지고기, 과일, 옥수수, 밀, 비철금속, 원유, LPG 등에 관세를 철폐 혹은 인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관세율 조정은 6 개국 간 무역협정인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협상 끝에 2016년에 협정국간 관세 인하를 합의했다. 물론 관세 조정안 발표 시기는 중국의 선택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시기(7월 6일)와 불과 5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미국과 반대의 행보 즉, 反보호무역주의를 택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중국보다는 국내 기업에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

중국 국무원 산하의 관세세척위원회의 공식 발표에 첨부되어 있는 8,549개 제품의 관세 조정안에는 최혜국 대우의 관세와 이번 조정 관세가 표기되어 있다. 이번 관세 조정안에 철강, 비철금속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업에게는 매우 긍정적이다.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규모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은 전체 수입 중 30%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은 자체 생산규모가 수입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국가임을 고려할 때, 수입규모 중 비중은 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중국의 조강 생산량과 전체 철강제품 수입 규모를 비교하면 2017년 기준, 수입은 1.6%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의 규모는 전체 조강생산량 대비 0.5%에 불과해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를 국내 기업 입장에서 살펴보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국내 철강 수출량 중 중국의 비중은 2017년 기준 13.8% 수준이다. 한편 포스코의 전체 판매량 중 중국향 판매 비중은 7.8% 수준이다. 그리고 중국향 수출제품 중 59.6%가 자동차 강판이다. 이와 동시에 자동차 강판 판매 제품이 대부분 하이엔드 제품임을 고려할 때, 관세 인하에 따른 판매량 증가는 분명 영업이익률에는 긍정적이다.

중국 내 수요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에 따라 관세 조정의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7월 이후 중국의 건설(부동산, 인프라), 자동차 등의 수요가 중요하다. 상반기까지 중국의 철강 수요는 매우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이는 철강제품 가격으로 반영되었다. 이와 동시에 최근 기준을 인하 등 완화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안정적인 수요의 지속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중국의 관세 인하 혹은 철폐가 국내 철강, 비철금속 기업의 수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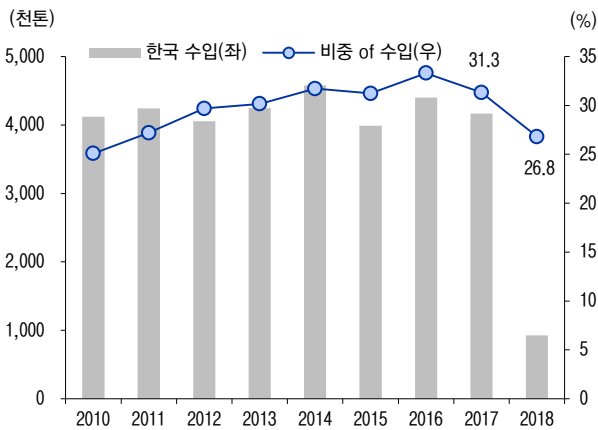
표1 관세 인하 혹은 철폐 품목 중 철강/비철금속 관련 제품 현황

품목	최혜국 관세(%)	7월 1일부터 적용관세(%)
아연 제품 및 스크랩	4.0	폐지
연 제품 및 스크랩	4.0	폐지
구리 제품 및 스크랩	4.0	폐지
알루미늄 제품 및 스크랩	4.0	폐지
비철금속 제품 및 스크랩	4.0	폐지
폐선철	2.0	폐지
선철	2.0	폐지
열연제품	5.0	폐지
냉연제품	6.0	폐지
압연재	7.0	폐지
형강	7.0	6.3
철도레일	6.0	폐지
선로 침목	6.0	5.1

주: 주요 제품의 관세 조정 내용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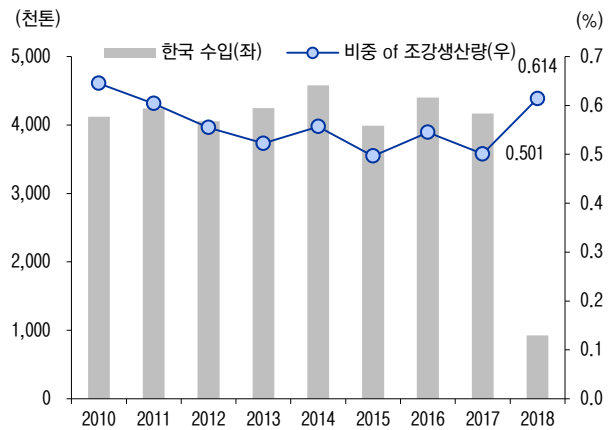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무원 산하의 관세세척위원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중국의 철강제품 수입 중 한국 비중은 약 30%에 육박



자료: CEI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중국 조강생산량 대비 한국 철강제품 수입은 0.5% 불과



자료: CEI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정하늘)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20% 이상 기대	90.1%	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 단계 (Strong Buy / Buy / Marketperform / Sell)에서 3 단계 (Buy / Hold / Sell)로 변경
		Hold (보유)	-20% ~ +20% 기대	9.9 %	
		Sell (매도)	-20%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17. 4. 1 ~ 2018. 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